

김지완 회장, 임기 5개월 남기고 사임... 차기회장 '촉각'

(BNK금융지주)

“가족 관련 의혹 도덕적 책임통감”
외부인사 가능하도록 규정 변경
차기 인선 내부 vs 외부 불가피
내부 9명, 외부 7~8명 전망

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이 임기 5개월을 남기고 사임했다.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도덕적 책임 성격이 짙다. BNK금융은 당분간 회장 권한 대행 체제로(직무대행) 운영한다. 차기회장 후보군은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인사도 포함된다. 최근 이사회에서 경영승계 규정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간 경계가 불가피해졌다.

BNK금융지주는 김지완 회장이 7일 오전 최고경영자(CEO)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그룹 회장이



BNK금융 김지완 회장. /BNK금융

로서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 악화와 그룹의 경영과 조직 안정 등을 사유로 사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사는 차기 회장 선출이다.

일부에선 경영승계 과정에서 '외풍'이 불 것이라는 분위기다. 그동안 BNK금융 차기 회장은 그룹 내부 승계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내부인사 중심 경영승계에 대한 '폐쇄성'이 지적됨에 따라 지난 4월 이사회에서 CEO 후보군에 외부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경영승계 규정을 바꿨다.

지난 3일 부산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내부 승계 계획 이후 아무런 지적과 문제 제기가 없다가 미묘한 시기에 폐쇄성을 언급하는 것은 정지권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BNK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인사로는 안감찬 부산은행장,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최홍영 경남은

행장, 명형국 BNK저축은행 대표, 김영문 BNK시스템 대표, 김성주 BNK신용정보 대표, 김병영 BNK투자증권 대표,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 김상운 BNK벤처투자 대표 등 9명이 회장 후보 대상이다.

외부 인사로는 금융권 출신과 BNK금융 퇴임 임원 출신 등 7~8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조속히 회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회를 통해 다음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BNK금융지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사임, 해임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인정하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다.

개시 시기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정하고, 임추위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사회 또는 임추위 소집 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주일 이내 개시한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BNK금융지주 회장직에 올라 2020년 한 차례 연임했다. 내년 3월 주주총회 때 퇴임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불거진 가족 관련 의혹과 지배구조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사임을 결단했다.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남아 있지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 희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회장은 BNK금융의 양적·질적 개선을 통한 양호한 경영실적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은행부문과 비은행부문의 균형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투자전문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보험개발원장 인선 '매듭'... 보험연구원장도 속도내나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새 수장 취임
연구원장도 공백기간 비슷해 눈길
전우현 교수 물망... 내년 인선 전망

반년 넘게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지 못했던 보험개발원이 새 수장을 맞았다. 비슷한 기간 동안 공석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연구원장 인선에도 눈길이 모인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새로운 보험연구원장 인선은 해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허창언 원장이 7일 보험개발원의 새 수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허 신임 원장 '모든 역량 집중'

허창언 신임 보험개발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보험산업은 대내외 환경변화로 복합적 위기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보험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한 고객 중심의 보험정보 서비스 제공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과 성장 지원 ▲보험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 ▲해외협력 체제 강화를 통한 보험회사의 해외



허창언 신임 보험개발원장이 7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진출 지원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와 대외 신인도 제고 등을 중점사항으로 꼽았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 산출, 통계, 자동차보험 차종별 등급, 손해보험 연구조사 등을 진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사단법인이지만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허 원장은 1987년 한국은행에 입행했으며 1999년부터 금감원에서 보험총괄팀장, 특수보험팀장, 감사팀장, 법무실장, 공보국장, 보험감독국장, 부원장보 등 보험 감독·검사 관련 주요 요직을 거쳤다. 이후 금융보안원 제2대 원장을 역

임한 뒤 지난해까지 신한은행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특히 허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출신 금융권 인맥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는 79학번 동기다.

보험개발원장 임기는 3년이다. 허 원장은 오는 2025년 11월까지 보험개발원장을 맡게 된다.

◆보험연구원장 인선도 속도?

보험연구원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새 수장을 찾지 못해 현재까지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

다. 정권 교체로 인한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차기 보험연구원장의 유력한 후보로는 서울대 법대 출신인 전우현 한양대 법대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보험개발원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허 보험개발원장이 선임되며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다만 인선 시기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 초 김선정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재현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 안철경 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최종면접 후보로 올랐지만,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돌연 취소되고 아직 선임 일정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 인물 모두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없어 최종면접이 무산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전우현 한양대 법대 교수가 차기 보험연구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며 “선임 시기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백지연 기자 wdus0248@

이재근 “KB만의 차별적 경쟁력 확보해야”

(KB국민은행장)

창립 21주년 기념사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이 “불확실성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KB만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근 은행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관에서 열린 ‘창립 21주년 기념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KB국민은행은 국가 애도기간 동안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추모에 동참

하기 위해 지난 1일 개최 예정이었던 KB국민은행 21주년 창립기념식 일정을 이날로 연기했다.

먼저 이 은행장은 KB국민은행을 신뢰하며 성원을 보내주시는 3300만 고객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이 은행장은 기념사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개인금융과 기업금융 부문이 탄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CIB·자본시장·WM·글로벌 등 핵심 성

장 비즈(Biz) 간 긴밀한 협업을 강조했다. 더불어 대면과 비대면 채널 간 유기적인 ‘심리스(seamless)한 결합’으로 고객 접점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KB국민은행의 미래상으로 ‘일상 속에서 늘 협업하고 혁신하는 조직’을 언급하며 일하는 방식에 있어 ‘소통의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은행장은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을 통해 스마트하고 수평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추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KB국민은행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를 필요로 하는 손길이 늘어나고 있음을 절감한다며, 고객이 없으면 KB국민은행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국민의은행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은행장은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들이 바로 KB의 희망이고 미래다”라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은행의 체력을 키워나간다면 더 큰 도약과 눈부신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백지연 기자

한은-한국경제학회

韓경제 안전 등 점검 11일 국제컨퍼런스

한국은행과 한국경제학회가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점검한다. 한은은 오는 11일 한국경제학회와 국제컨퍼런스(BOK-KEA International Conference 2022)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컨퍼런스 주제는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의 도전과제: 성장과 안정(The Challenges of Korean Economy After COVID-19: Growth and Stability)’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고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자본이동 확대 등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와 글로벌 경제질서의 분절화 및 장기저성장 등 구조적 제약요인에 대해 논의한다.

컨퍼런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개회사와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에서 논문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했다. 패널세션에서 종합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국내외 학계 및 정책 일선의 저명인사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해외에서 조슈아 아이젠만(Joshua Aizenman)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 이핑 후양(Yiping Huang) 베이징대 교수, 로버트 슈바라만(Robert Subbaraman)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왕 찬 위안(Wong Chan Yuan) 국립청화대 교수, 제임스 몰레이(James Morley) 시드니대 교수 등의 저명 학자가 참여한다.

국내 인사로는 이근 서울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김진일 고려대 교수 등이, 한은에서는 박기영 금융통화위원, 박양수 경제연구원장 등이 참가할 계획이다. /백지연 기자